

「신기한 양말」 - 금년 추동절에는 50% 생산증가

일본의 아시꾸라 상사는 작년 10월에 「신기(新奇)한 양말」이라는 상품명으로 보온(保溫) 양말을 시장에 내놓았는데, 다른 양말보다도 비싼데도 의외로 곧 매진되어 다시 추가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았는데도 2개월 후인 12월에 매진되고 말았다.

「신기한 양말」은 파일상의 보온소재 「메이피일」로 맨즈용 양말과 레이디즈용 양말을 생산하고 있는데, 금년 추동절에는 작년 시즌보다도 50%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.

판매가격은 1,200엔, 1,500엔, 1,800엔의 3종류가 있으며, 당초에는 1,000엔이 넘는 고가품이라 판매가 불안하였으나, 2번이나 호평 속에 매진됨을 보고 염가상품과 차별화만 뚜렷이 되면 고가상품일지라도 팔린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.